



“싱가포르 에어쇼 2006”

글 | 한봉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국제전시부)

43개국 940여개 업체 참가

싱가포르 에어쇼 2006이 지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개최되었다. 싱가포르 에어쇼는 각각 100여년과 7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나 영국의 판보로에어쇼 보다는 역사가 짧은 지난 80년대 초부터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지리적인 역학 등으로 인해 아시아의 대표적인 에어쇼로 자리를 잡아왔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43개국 940여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해외 VIP도 153명이 초청되었으며, 총 4일간의 비즈니스 기간 동안 99개국에서 34,000명의 Trade Visitor들이 행사장을 방문하였다. 행사기간 중 각 업체들에 의해 발표된 계약거래액만 지난 2004년도 행사보다 4.5배 증가한 152억 달러에 이른다.

싱가פור는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보잉의 F-15를 이미 선정함에 따라 F-15를 제외한 최신에 전투기의 비행을 볼 수는 없었으며, 신기종 항공기 발표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Hermes와 Heron 무인기가 비행을 실시함으로 주목을 끌었다. 또한 싱가포르 국방부가 자국 공군용 기본훈련기 리스를 추진함에 따라 대상 기종인 Raytheon의 T-6B, Pilatus의 PC-21, Aermacchi의 M-311 등의 기본훈련기가 경쟁을 벌였다. 에어버스는 A-380의 첫

고객인 싱가포르 에어라인의 도색을 하고 비행을 함으로써 첫 아시아 투어를 시작하였다.

싱가포르 에어쇼의 강점은 아마도 다양한 세미나일 것이다. 올해도 개막식 직전인 2.19(일), 20(월) 이틀 동안 ‘Asia-Pacific Security’, ‘C4I Asia’, ‘Land Defence Asia’, ‘Unmanned Systems Asia-Pacific’ 등의 컨퍼런스와 ‘IATA/Asian Aerospace Aviation’ 총회가 개최됨으로써 전시회와 세미나를 연계한 항공우주 분야 종합 박람회로 진행되었다.

둘로 나뉜 싱가포르 에어쇼

싱가포르 에어쇼는 영국의 Reed사와 싱가포르의 Singapore Engineering Co.가 조인트 벤처로 Asian Aerospace Ltd를 설립하고 1982년부터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며, 올해로 13회째를 맞는다. 그러나 양사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싱가포르 정부와 Reed사가 각자 독자적인 에어쇼를 새롭게 개최하기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Changi International Airshow’ 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창이공항 동쪽에 전시관을 새롭게 신설하고 오는 2008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로이 건설되는 전시장은 오는 2007년 8월 완공예정인 전시관 완공시 40,000sqm의 실내전시장, 200동의 살레, 100,000sqm의 야외전시장, 2,000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며 전시관 앞에는 창이공항 제3활주로도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과 국방 과학기술위원회(Defense Science & Technology Agency)가 Changi International Airshow & Event Pte. Ltd라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였다. 동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에어쇼 2008은 전체 실내 전시관의 60%의 부스가 이미 예약완료 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반면에 지금까지 싱가포르 에어쇼의 공동 주관사인 Reed Exhibition은 'Asian Aerospace' Brand를 유지한 가운데 홍콩으로 개최지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Asian Aerospace는 2년 뒤인 2008년이 아니고 2007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홍콩 Asia World Expo 전시관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민수분야 위주로 비즈니스 데이만 개최된다. 민수분야 위주의 베이징 항공전시회가 2007년 9월 19일부터 22일 까지 개최됨에 따라 향후 2007년 9월 같은 성격의 행사가 중국에서 중복되어 개최되게 된다.

항공우주산업(주) 민수사업 확대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는 우리협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Hall C에 전시관을 구성하였으며, 유콘시스템은 Hall A의 UVS관에 홍보부스를 구성하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T-50, A-50, KT-1, UAV 등의 모형을 전시하고, 세계시장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 활동 전개하였다. 또한 현재 방산사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성장발판을 위한 민수분야 마케팅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였다. 2월 20일 Bell사와 "429 헬기 동체 생산계약"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동사는 향후 10년간 최소 1억 5천만불 규모의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2월 23일에는 에어버스사와 차세대 대형 여객기인 A350 공동개발 사업에 위험분담 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최첨단 신형 항공기의 개발부터 참여함으로써 향후 최소한 10억 불 규모의 사업물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어버스와는 같은 날 8천만불 상당의 A321 동체 구조물 물량을 수주하여 2010년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에어쇼 2007' 2007년 10월 16일부터 21일 개최

우리협회는 2007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공항에서 개최예정인 '서울에어쇼 2007' 홍보 및 유치 활동을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부터 시작하였다. 협회는 '서울에어쇼 2005' 해외 참가업체들의 성공적인 개최 평가로 '서울에어쇼 2007' 유치 대상 업체로부터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음으로써 '서울에어쇼 2007'의 또 다른 성공을 예상한다.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의 활주로, 전시관, 주차장, 부대시설 건립 등의 막대한 지원을 보면서 서울에어쇼가 아-태지역 최고의 비즈니스 장이 되려면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홍보부스



KAI는 에어버스사와 A350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에어쇼 홍보부스



창이 국제공항 내 마련된 행사장